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한다

종단·문화재청 성보 전승할
‘불교문화재 종합병원’ 역할
비지정 문화재, 서지류까지
보존관리 어려운 현실 개선

조계종이 불교성보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칭, 이하 보존센터)’를 건립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1월26일 신년기자브리핑에서 조계종과 협의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불교유산 소장자 중심의 보존센터 건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존센터는 국고지원 140억원, 종단에서 60억원을 부담해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재보존처리 기관이다. 전통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성보문화재에 대한 진단, 보존, 복

원, 연구를 담당한다. 시행 첫 출발인 올해 총무원 문화부는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기본설계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존센터 건립은 종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종단이다. 한국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찰성보는 약 10만7000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보나 보물, 지방유형문화재 등 지정문화재가 1490점, 나머지 98.6%에 달하는 10만5950점이 비지정문화재이다.

하지만 현행 문화재 보존정책이 지정문화재 우선이다 보니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제때 보존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하지만 국가소유문화재가 많고, 국립박물관 소장 문화재 가운데 상당수가 수장고에서 보존처리작업을 기다리는 점을 감안하면, 비지정

불교유산까지 차례가 돌아올지 미지수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종단의 보존센터 건립은 뒤늦은 감도 있다. 일본에는 이미 50년 전에 설립된 사찰문화재연구소가 있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연구소는 지난 2006년 영축총림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수리복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종단의 보존센터 역시 일본 강고지문화재연구소 활동을 거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완공예정인 보존센터는 ‘불교성보문화재 종합병원’이라는 별칭답게 목조, 석조, 금동 등 불상과 불화 등 지류의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한다. 또 보존환경 개선과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복원, 사찰에 맞게 보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불교문화재 보존처리 업체에 공간을 지원하고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정, 모사, 보존처리 기술자와 같이 뛰어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영입과 기술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보존센터가 체계적인 보존처리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존처리기관 및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보존 및 복원기술력을 양성하고 교육 및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근래 들어 사라져가고 있는 옷칠, 개금, 소목장 기술을 되살려 전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찰성보박물관과 연계해 안정적인 보존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불교의 성보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장 정안스님은 “유수 연구기관을 통해 초기 설계를 마친, 전 종도가 바라는 보존센터를 건립하겠다”며 “보존센터는 불교문화재 종합병원답게 사찰이 언제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중한 불교유산을 만대에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국내입양 활성화 힘 보탬 것”

총무원장스님 성가정입양원 방문

생명존중 문화 확산 동참 ‘약속’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월27일 가톨릭이 운영하는 국내입양전문기관인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가정입양원은 1989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낙태를 막고, 우리 아기는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신념 아래 설립한 입양기관이다. 현재까지 2900여명의 아동이 이곳을 거쳐 국내 가정에 입양돼 생활하고 있으며, 월평균 80~100여명을 보호하고 있다.

남해경 원장 수녀는 “김수환 추기경이 당시 굉장히 성행했던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 존중의 의미로 설립한 기관”이라며 “해외로 많은 아동들이 입양돼서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올해 조계종 차원에서도 생명존중 확산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종교계가 당연히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 뜻있는 활동을 하고 있어 반갑다”면서 “낙태 문제를 보듬고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가정입양원을 모범 모델로 삼아 불교계도 이런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방으로 자리를 옮긴 총무원장 스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시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의 말도 건넸다. 후원금으로 1000만원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매달 한차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위로하는 ‘자비나눔’ 일환으로 진행됐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월27일 가톨릭이 운영하는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해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불교계도 국내 입양시설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사회부장 정문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경스님 등도 함께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가슴과 영감을 따라 살아라

새벽 법당을 가려고 나선 길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밝은 보름 달빛을 타고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 눈은 소리 없이 내려 쌓여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한발 한발 눈에 발자국을 찍으며 가는 길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을 미소처럼 내보이며 하늘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눈길을 걸으며 법당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시구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다시 한번 눈을 보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알 수 없는 행복이 가슴에 달빛처럼 차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알 수 없는 행복은 사랑입니다. 가슴과 영감으로 찾은 내 인생을 살고 있기에 만나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들 가슴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던져준 삶을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며 행복을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먹고 살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누군가가 견고한 일상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핍과 경쟁의 길입니다. 사랑을 하려고하나 사랑할 가슴을 지닐 수가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미국 명문대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몸입니다. 그러니 가슴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가슴과 영감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랑과 감동은 아마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눈길을 걸으며 내가 사랑과 감동을 느끼는 것은 출가자의 내 삶이 강요된 일상이 아니고 가슴과 영감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슴과 영감을 따를 때 나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리게 되면 오직 일상적인 생존의 길을 걷게 될 뿐입니다. 나는 내 삶의 길을 사랑합니다. 가슴과 영감을 따라 선택한 나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 위에서 나는 감동과 사랑에 대한 꿈을 꾼다. 남해 염불암

社告

조계종총본산 성역화 대작불사에 동참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는 총무원 일대를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공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장엄하는 불사입니다. 1700년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작불사입니다. 이에 불교신문은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성역화불사 기금 모연을 전개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ARS(전화)모연: 060-700-1027

●문자모연: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내용은 자유롭게 입력가능
(예:사찰명, 개인이름 등)

●모연계좌:

농협 301-0160-9713-71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국민은행 023501-04-221144
(재)대한불교조계종

●모연문의: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불교신문



지구촌공생회 ‘후원자 뜻’ 받들어
캄보디아 학교 2곳...도서관 설립 7면

지구촌공생회
Good Hands

愛惜物命

丙申元旦月殊

모든 생명과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라

丙申年 새해 부처님의 가피와 복덕이 가득하여 가정에 평안이 깃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나눔과 헌신으로 지구촌 이웃들과 공생하는 삶이 2016년에도 계속 이어지시길 바라며
모두의 염원을 담아 지구촌공생회는 더욱 분발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ww.goodhands.or.kr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종교, 민족, 이념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2003년 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철수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11개 빈곤국가 주민들을 위해 식수지원, 교육지원, 지역개발사업 등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정기 후원, 홀몸어르신 식사대접, 어르신 생신잔치 등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분들
이사장: 송월주(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금산사·영화사 조실) 이사: 자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원(금산사 회주), 성대(불광사 회주), 성승(해운사 주지), 도원(학림사 회주), 평상(백련사 주지), 지흥(불광사 회주), 선목(108산사순례지도회 회주), 원행(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지현(조계사 주지), 정년(월정사 주지), 성우(금산사 주지) 감사: 월우(대흥사 주지), 정연한 사무총장: 원광(심원암 주지) 사무처장: 석림(관음사 주지)
미국서부지부(지부장 현철, 전북지부(지부장 원광), 대전지부(지부장 광진), 대구지부(지부장 선지), 강원지회(지회장 정인), 대전1지회(지회장 도원), 충북지회(지회장 현진), 서울서부지회(지회장 송재봉), 익산시회(지회장 양연옥), 군산시회(지회장 박순호), 강원영동지회(지회장 권동원) 그리고 17,000여명의 후원회원과 함께합니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생명의 손
4개국 총 2296 기
식수시설 건립 및 사후관리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손
8개국 총 53개
교육시설 건립

변화를 일구는 지립의 손
5곳의 자립농장 및 사업장 운영
캄보디아 지리재가사업
(20개마을, 15만여 명)

아름을 보듬어주는 자비의 손
지구촌 곳곳 재해지역 긴급구호
2015.4.25 내발 강진 발생
6차례 긴급구호

■ 후원문의 02.3409.0303 ■ 후원계좌 국민은행 337101-04-019295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농협 100026-55-003657 (사)지구촌공생회 우리은행 1005-501-777087 (사)지구촌공생회